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지유학사지

vol.12

2017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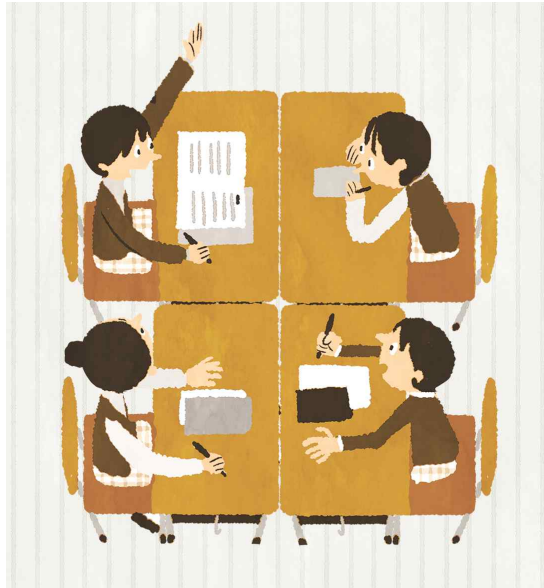
www.m-teacher.co.kr  
edu.donga.com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 “또래 관계 어려움 느끼는 학생들, 체험활동으로 극복해요”

※ 이 사례는 최혜영 강원 북평여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 북평여중은 학생들이 학업중단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일대일 멘토링’과 같은 개인상담도 있지만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또래 친구와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집단 상담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지요.

### 1박 2일 캠프와 다채로운 체험활동으로 ‘또래관계 회복’

지난해 북평여중에서 진행됐던 체험 프로그램은 1학년 프로그램과 2·3학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이뤄졌습니다. 1학년 13명은 강원 동 해시 무릉건강숲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건강 힐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했습니다. 학생들은 캠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고 친구들과 함께 친환경 티셔츠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또래 친구들과 하루 종일 붙어있으면서 함께 활동했던 학생들은 이후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욱 편안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대일 상담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효과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3학년들은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교내 Wee클래스에서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 회마다 14명씩 참가해서 총 56명의 학생이 이 체험활동을 즐겼습니다. 이 체험활동의 특징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과 함께 또래상담사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또래 상담자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끌면서 다소 수줍어하고 소극적인 학생들까지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친환경재료로 생활용품 만들기 △스카프에 천연염색하기 △푸드 테라피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지요. 이런 활동을 통해 상담이 필요했던 학생들은 점차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친구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비폭력 대화 나누기’로 또래 간 갈등 해결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집단 상담도 또래 관계를 회복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욕을 자주하는 친구로 인해 상처를 입은 학생,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호소하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은 바로 ‘비폭력 대화 나누기’를 토대로 한 집단 상담입니다.

비폭력 대화 나누기는 상담교사가 갈등이 있는 학생들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모두를 불러 모아 대화를 나누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만난 자리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는 비밀로 한다’고, 둘째는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가로막지 않는다’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네가 ~을 했구나”라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되묻습니다. 이후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며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지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너는 사실 ~하기를 바란 것이었겠구나”라며 그 당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줍니다. 일대일 상담을 할 때는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 활동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상담프로그램을 계속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mailto:leews111@donga.com)

##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대구 조암중 교사연구회 ‘조암의 품격’

## “모든 교사가 한 마음으로 학생참여활동 수업 실천했어요”



함께 모여 PBL 수업 연수를 받는 ‘조암의 품격’ 교사들. 대구 조암중 제공

대구 조암중은 지난해 3월 개교했다. 지난해 첫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조암중에 있는 22명의 교사는 모두 1학년 수업을 맡았다. 1학년 2학기에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암중의 전교사는 머리를 맞대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 이때 구성된 연구회가 바로 ‘조암의 품격’. 조암중의 모든 교사가 포함된 이 연구회는 수업 커리큘럼 구성, 자유학기활동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이 연구회의 책임을 맡았던 신미선 대구 조암중 과학교 사에게 교사연구회 운영 방식과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 모든 교과에서 PBL 수업을

조암의 품격 교사연구회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고안해냈는데, 이 과정에는 모든 교사가 참여했다. 자유학기가 실시되기에 앞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다. 이때 나온 방안이 PBL 수업. ‘Project based learning’의 줄임말인 PBL 수업은 다른 말로 ‘문제해결학습방법’이라고도 한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실제 또는 가상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찾고 이를 발표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과 협동능력을 기르는 수업 방식이다.

조암의 품격 교사들은 교과 성취기준을 고려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완성도 높은 PBL 수업을 기획하기 위해 교수들로 이뤄진 PBL 수업 전문 강사를 학교에 초청했다. 4~7월에 걸쳐

총 30시간의 PBL 수업 연수를 받은 조암의 품격 교사들은 7, 8월에는 교과별 협의회를 열고 과목별 교사끼리 수시로 만나 각자 PBL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깊이 있게 토의했다.

조암의 품격 교사들은 서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예술제 작품 전시회 코너를 기획하며 이육사의 삶과 문학이 담긴 팸플릿 만들기(국어) △한류열풍에 대한 비판적 기사문 작성하며 대중매체의 역할 배우기(사회) △물병 디자이너가 되어 입체도형의 전개도 그려보기(수학) 등 각자 과목에 적합한 색다르고 다양한 수업들을 전개했다. 신 교사는 “교사 한 명이 이런 수업을 기획하려고 했다면 상당히 어려웠겠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수업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교사들간 협업으로 수업 문제점 보완

조암의 품격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유학기 동안 최소 1회씩 PBL 수업을 진행한 조암의 품격 교사들은 자신들이 한 수업을 영상으로 남기고 학생들의 학습지, 결과물 등을 꼼꼼하게 모아 전문 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를 통해 받은 세세한 피드백으로 조암의 품격 교사들은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에도 PBL 수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 교사는 “지난해에는 여러 과목에서 PBL 수업이 동시에 진행 되다보니 매 과목마다 함께 활동하는 모둠이 바뀌고, 또 여러 교과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다는 학생이 더러 있었다”면서 “올해는 조암의 품격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교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월상 기자 [leews111@donga.com](mailto:leews111@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mailto: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